

중국 동북공정과 고구려 역사 정체성에 대한 소고 ①

춘천영업소 안 동 유

1. 들어가는 말

몇 년 전부터 중국의 동북 공정이란 것이 문제가 되었다. 우리 역사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이 '자기네 지방정권이었다' 라는 논리로 자국의 역사에 편입하려는 것이었다.

그 후 한동안 잠잠했으나 요즘 다시 문제가 되었다. 이번엔 고구려뿐만 아니라 고조선·부여·발해 등 우리 역사의 상당 부분을 자기네 지방 역사로 편입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제대로 된 우리나라의 대응이 눈에 띄지 않는다.

정부는 중국과의 정치, 외교, 무역 관계를 우려하여 쉬쉬하는 분위기고 우리 학계는 정부의 재정지원 타령만 하며 제대로 논리를 내세우지 못하고 전전공공하고 있는 모습이다.

외교, 무역 관계와 역사적 정통성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정부의 논리가 의아하기도 하지만 도대체 역사 연구가 재정적 지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학계의 대응은 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나아가 실망스럽기까지 하다. 우리 고대사 문제는 해당 분야 사학자들의 지극

히 당연한 연구 과제가 아닌가? 마치 때 만난 듯 예산 타령만 늘어놓는 건 학자의 본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고 염불보다 잣밥에 마음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아니면 그 동안 나태한 연구 자세와 무능함을 숨기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왜냐 하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문혀진 자료의 발굴과 세밀한 검토를 하기 전에 일반적인 역사 상식만으로도 얼마든지 중국 측의 논리적 허구를 밝혀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민족은 핏줄을 같이하고 언어, 풍속, 생활 습관, 원시신앙 등을 비롯한 문화적 동질성을 가진 사람의 집단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생각하면 의외로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다(대개 거주 지역도 밀접한 관계인 경우가 보통임을 고려하면 더욱). 게다가 알려진 몇 가지 사료만 해도 얼마든지 논리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몇 가지 간단한 실제적 분석을 통해 중국 측 주장이 허구임을 입증해 보자.

2. 고구려가 중국의 고구려 현에서 출발한 지방정권이라는 중국의 주장에 대하여-나라이름 등 언어학을 중심으로

고구려는 한자로 아무런 뜻도 없는 말이다. 이전부터 있던 구려라는 나라 이름에 높다는 고자를 붙여 나라 이름으로 삼았다는 게 중국 측 주장이다.

나라 이름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짓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나라 이름엔 다 뜻이 있는 것이다. 고구려는 여러 기록에 고려라고도 기록되어 있다(수서 동이열전에도 고려라고 표기되어 나오는데 왕건이 세운 고려 왕조가 아닌 주몽의 고구려를 말한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고구려나 고려나 같은 말이기 때문이다(구려의 소리도 고려와 비슷한 소리로 같은 말을 한자로 표기할 때 나타나는 차이일 뿐 한자가 다르다고 다른 말이 아니다). 당시 고구려 말의 이두식 표기가 한자를 빌어 나타난 것이다.

고구려뿐만 아니라 중국 주변의 많은 민족(부족)이 이러한 표기 방법을 썼다. 글자가 없는 중국 주변국들은 자기 글자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기록하는 데 두 가지 방법을 썼다.

첫째 한자를 빌려 그 뜻을 기록하는 방법이다. 중국식 표기를 통해 내용만 기록 전달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자신들의 말을 그대로 기록하되 소리만 한자를 빌려 써서 한자의 뜻이 아닌 자기말의 소리로 그 뜻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두나 그 비슷한 방식은 다 이렇게 뜻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소리를 기록한 것이며 이는 중국과 스스로를 구별하는 독자적인 자주 정신의 표현이다.

그러면 한자의 뜻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고구려는 무슨 뜻일까? 그 소리를 통해 당시의 말을 알아보면 간단하다.

우리식 한자 소리는 고구려지만 중국식 한자의 소리는 가우리, 또는 가우취리로 읽힌다(고려는 가우리, 고구려는 가우취리). 고구려와 고려를 혼동하여 썼다는 것은 한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기된 소리가 중요하며 둘은 거의 같은 소리 값을 가지는 것이라는 증거다.

통상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고구려를 가우리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당시 고구려인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일 것이다

가우는 가운데의 가우, 리는 땅을 뜻하는 우리말이다(노, 로, 누, 루, 려, 리, 례, 나, 라는 다 땅을 뜻하는 말이며 소리 값이 비슷한 말로 그 차이는 방언 내지는 한자를 빌려 쓴 표기상의 문제에 불과하다. 온 누리의 누리도 같은 갈래의 말이다).

나라는 만주말로 땅을 뜻하는 말이며 고구려의 오부족을 환나, 연나, 또는 환노, 연노 라고 혼동하여 쓰며 ‘나’ 또는 ‘노’가 한가지로 들어가며 계루는 루로 표기하는 것(누리의 누와 같은 말)을 봐도 그렇다. 왜 고대의 많은 땅이름이 ‘라’나 ‘나’로 끝나는가? 그것은 땅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이다(물론 골, 별이나 달이란 또 다른 말이 땅을 뜻하기도 한다. 이는 나중에 다시 살펴기로 하자). 무슨무슨 땅, 뭐하는 곳 이런 뜻이다. 다파나국의 나, 하슬라(강릉)의 라, 사로국의 로, 구다라(백제)의 라, 가라국의 라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예를 들 수 있으며 위례의 례나 일본의 고도 나라도 그런 용례로 보인다(지금도 일본에선 들-땅을 노라고 한다).

간단히 말해 가우리는 가우(가운데)+리(땅)이다. 그 뜻을 한자로 나타내면 중국이란 뜻이다. 천하의 중심, 세계의 중심 국가. 중국이, 중국이 아니라 우리가 중국이라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고구려 고분과 일본 다카마쓰 고분 천장의 천체도이다. 고구려에서 바라 본 밤하늘의

천체도가 우리 뿐 아니라 일본에도 버젓이 존재한다.

어째서일까? 당시 고구려는 중국 중심의 세계가 아니라 스스로를 중심으로 한 세계 및 우주적인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이 고구려의 영향을 받는 일본에까지 전파되어 보편성을 띠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논리적으로 중국에 대등한 또 하나의 세계 중심, 천하의 중심 국가 즉 중국임을 표방한 고구려가 어찌 중국의 일개 지방 정권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나라 이름만 살펴봐도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3. 신앙 등 고구려인의 인식

고구려인의 의식을 가장 뚜렷하게 전해 주는 유물이 광개토대왕비이다. 광개토대왕비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자신들의 조상과 유래에 대하여도 잘 기록해 놓고 있다.

고구려인은 스스로를 천손이요 일월지자며 하백의 외손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늘의 자손이며 해와 달의 아들이라고 스스로의 선민의식과 우월감을 나타내고 있는 고구려인이 어찌 중국의 지방정권이요 소수민족이 될 수 있는가? 중국의 황제는 스스로를 천자, 하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방정부가 어찌 황제만 일컬을 수 있는 하늘의 자손이요 해와 달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가? 마치 한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지방 정권이라면 천자가 이를 용납할 수 있는가?

이러한 논리적인 분석만으로도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는 중국의 주장이 허구임을 쉽게 밝힐 수 있다.

또한 몽골 동부, 만주, 한반도 나아가 일본에 걸쳐 밝음에 대한 신앙이 퍼져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몽골 동부, 내몽골 일원의 난생 설화를 비롯해 주몽설화의 알에 대한 전설은 밝은 해를 상징하며 신라 혁거세 신화의 알도 그러한 사상의 연장이다(신라의 건국이념은 광명이세이며 혁거세는 불구래라는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면 불구래의 한역임을 알 수 있다).

김알지, 김수로 등 여러 왕들의 전설에서 알에 대한 설화가 있는 것도 같은 사상의 표현이며 백제는 밝жат(밝은 성)의 소리를 한자로 표기할 것에 불과하고 일본은 말 그대로 해뜨는 근본 장소이다. 고구려, 발해 시대 압록강가의 박작성은 백제의 뜻 밝жат과 같은 말이다. 발해 역시 밝해(밝은 해), 또는 밝벌의 소리를 한자로 기록한 것이다.

주몽의 아버지 해모수는 천제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래서 성을 해(태양)씨로 삼은 것이며(성이라기보다 돌림자에 가까운 것이지만) 고구려 초기에 많은 인명이 해씨를 성으로 삼은 것은 이런 사상의 흐름을 잇고 있다. 해부루, 해색주, 해명 등 많은 초기 왕이나 왕족의 이름이 해씨라는 것은 광개토대왕비에 나타난 대로 하늘과 왕족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며 밝음(해)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기도 하다.

중국 사상의 주류를 이루는 도교나 유교 사상 나아가 그 뿌리를 이루는 신화와 전설 어디에도 이런 정신적 내면세계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중국과는 전혀 별개의 정신세계를 이루고 있는 몽골, 만주, 한반도, 일본은 별도의 문화벨트를 이루는 하나의 고대사 영역이다.

다음호에 계속 ◉